

## 17-18 세기 몽골구어의 문헌들은 한국어사의 자료가 된다

S.BATKHISHIG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한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와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의 언어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언어의 역사적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언어사 연구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언어 변화란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은 중세에서 17-18세기 언어로 오는 변화 과정에 나타는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17-18세기 몽골어와 한국어에는 중세어와 현대어의 변화 과정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학자들은 한국어와 몽골어사를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원시어의 경우에는 알타이제어(돌궐, 만주-통구스제어, 몽골어, 고대 일본어)의 비교 연구로 음운 변화를 재구하였으며, 고대어의 특징을 원시어에서 변화한 제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정의하였다. 중세어는 한자로 표기한 문헌, 다른 문자 문헌에는 당시 언어의 특징이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7-18세기 한국어와 몽골어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문헌 자료들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7-18세기 한국어와 몽골어의 특징을 한글과 만주 문자로 쓰인 구어 형태를 갖고 있는 몽골어 문헌들에서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어의 경우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중세몽골어는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몽골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는 중세몽골어에서 현대몽골어로 이어지는 중간에 또 다른 언어적 단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몽골어의 시대구분에서 17-18세기를 중세몽골어나 현대몽골어와 구분하여 다른 시대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17-18세기에 기록된 몽골어 문헌들은 고대몽골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몽골문어(*Written Mongolian*)로 쓰여졌기 때문에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몽골어는 고대몽골어 후기에 위구르진 몽골문자<sup>1)</sup>로 표기되기 시작하여

---

1) 몽골문자는 `xuuchin mongol bichig` (고대몽골문자), `xudam mongol bichig` (후담 몽골문자), `uigarjin mongol bichig` (위구르식 몽골문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고대몽골어시기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긴 시간 동안, 몇몇 다른 몽골문자<sup>2)</sup>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지역과 시대에 따라 사용된 문자의 종류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몽골문어는 고대몽골어 시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몽골문어로 기록된 17-18세기 몽골어 자료들에서 그 시대의 언어적 특징을 찾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17-18세기 몽골어를 현대몽골어의 초기로 구분해 왔고, 일부에서는 중세몽골어의 말기로 보아 왔다.

18세기에 조선의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된 <몽어노걸대> (蒙語老乞大)와 <몽어유해> (蒙語類解) 그리고 <첩해몽어> (捷解蒙語)는 몽학삼서(蒙學三書)로 알려져 있다. 이 문헌들에 나타난 구어적 요소들은 근대 몽골어의 자료인 북경본 게세르와 토드 및 횡서 사각 문헌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이 문헌들을 대상으로 1950년대 말 이후 한국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업적도 적지 않다. 이들 자료는 17-18세기 몽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특징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몽학삼서는 몽골문자로 쓴 몽골어를 한글로 전사 기록한 것으로 음운론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구어의 영향을 받은 문어로 쓴 <몽어노걸대>를 한글로 같이 전사 할 때 구어 발음을 바로 기록한 예가 많이 보인다. 많이 나타나는 예를 들면, 몽골문어: *mgri* ‘하늘’ ~ 한글: ‘텅거리’ *təngəri*(0102b02), 몽골문어: *kümiin* ‘사람’ ~ 한글: *kün*(0102b04, 0821b01...) 등등. 몽골문자 예가 구별되지 않은 d(ᠳ), t(ᠲ), ö(ᠥ), ü(ᠦ) 등의 글자를 한글로는 구별해서 표기하였다.

<蒙語老乞大>의 몽골문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단순 비교 해도 음운론적으로 많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또 <몽어노걸대>가 갖고 있는 실용적 성격을 <첩해몽어>와 <몽어유해>의 음운론적 특징과 비교한 논문도 있다. 정제문(1992:10)은 그 당시 만주자 전사의 원칙과 한글 전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몽어유해> 및 만주자 문헌의 대조 작업이 먼저 수행되어야 이 표기들이 나타내는 음가를 추정하고 이들의 음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7-

---

위구르와 소그드 문자의 요소를 받아들여 몽골어에 맞게 정서법을 조절한 문자이다. 몽골이 그 문자를 언제 처음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1000년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몽골문자를 몽골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며, 몽골문자로 쓰인 신문을 따로 출판하고 있다. 또한 몽골문자로 대통령령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업무에도 사용하고 있다. 내몽골에서는 몽골문자가 공식 문자이다.

2) 몽골 민족은 역사적으로 10개 정도의 문자를 사용하였다. 위구르에서 받아들인 몽골문자를 사용하면서도 문어를 구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그리고 불교 또는 국가적 목적으로 사각(*Phag's Pa*), 토드, 소음보, 횡서 사각, 와킨드라 등의 문자를 사용하였다. 그 문자들에 대해서는 Ц.Шагдарсүрэн(1981, 2001-1), 세계의 문자(1996) 등 참고.

18세기에 간행한 몽골어 자료를 만주문자로 기록한 사전에 대하여 이기문의 <蒙語老乞大 연구>에서 북경본 <계세르>의 음운론적 특징과 비교해 본 몇 개의 문제를 몽학삼서 및 만주 사전의 표기 규칙에 관련해서 설명했다. 그것은 <몽어노걸대>가 몽골어의 어떤 방언에 근거하여 기록되었나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몽어노걸대>가 근거한 기초 방언은 만주어의 영향을 받았던 호르친(*Khorchin*), 하르친(*Kharchin*) 방언으로 보았다.

<몽어노걸대>의 언어 연구에 대해서 김방한(1962, 1963, 1965, 1967), 이기문(1964), 김미형(1993), Wayne Schlepp(1997), 이성규(1994, 2002) 등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몽어유해>의 언어 연구에 대해서는 김방한(1971), 송기중(1985), 이성규(2002), <첩해몽어>의 언어 연구에 대해서는 김방한(1963), 이성규(1994, 1997, 2002, 2004) 등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 1. <蒙語老乞大> 표기법

① 한글로 전사한 부분은 몽골문자의 원본을 따라 쓴 것 같지만 몽골문자의 원본과 다르게 당시 구어형으로 기록한 것이 비교적 많다. 예를 들면,

한 문장(<몽어노걸대> [0102b])에서만 다음 단어들이 나타난다.

- a. CM. üge-yi `말씀을` > kh. ügīg ~ han. ügə-gi
- b. CM. tngrī `하늘` > kh. tengēr ~ han. təngəri
- c. CM. örüsüjejü `용서하고` > kh. örshöödz ~ han. örsyejü
- d. CM. kümün `사람` > kh. xün ~ han. kün 등등.

② 몽골문자로는 같은 문자로 기록된 서로 다른 음들을 한글 표기에서는 발음에 따라 구분해서 표시하였다.

- |       |       |        |       |
|-------|-------|--------|-------|
| a. Fo | 오 (o) | b. Foi | 위 (ö) |
|       | 우 (u) |        | 우 (ü) |
| c. D  | ㅌ (t) | d. k   | ㄱ (g) |
|       | ㄷ (d) |        | ㅋ (k) |

## 2. 음운 대응

<표 1> 몽어노걸대의 몽골문자와 한글 기록의 음운 대응

№	글 자						라틴 전사
	어 두		어 중		어 말		
	몽골자	한글	몽골자	한글	몽골자	한글	
1	ᠠᠡ	아	ᠡ	ㅏ	ᠡ	ㅏ	a
2	ᠡ	어	ᠡ	ㅓ	ᠡ	ㅓ	e
3	ᠢᠠ	이	ᠢ	ㅣ	ᠢ	ㅣ	i
4	ᠣ	오	ᠣ	ㅗ	ᠣ	ㅗ	o
5	ᠢᠣ	위	ᠣ	겨	없 음		ö
6	ᠣ	우	ᠣ	ㅜ	ᠣ	ㅜ	u
7	ᠢᠣ	우	ᠣ	ㅜ	ᠣ	ㅜ	ü
8	없 음		ᠡ	ㅓ	없 음		è
9	ᠢ	ㅣ	ᠢᠡ	ㅣ	ᠢᠡ	ㅣ	ï
10	ᠨ	ㄴ	ᠨ	ㄴ	ᠨ	ㄴ	n
11	ᠯ	ㄹ	ᠯ	ㄹ	ᠯ	ㄹ	l
12	ᠮ	ㅁ	ᠮ	ㅁ	ᠮ	ㅁ	m
13	ᠬ	ㅎ	ᠬ	ㅎ	ᠬ	ㅎ	q
14	ᠬ	ㅋ	ᠬ	ㅋ	없 음		k
15	ᠭ	ㄱ	ᠭ	ㄱ	ᠭ	ㄱ	γ
16	ᠬ	ㄱ	ᠬ	ㄱ	ᠬ	ㄱ	g
17	ᠪ	ㅂ	ᠪ	ㅂ	ᠪ	ㅂ	b
18	ᠰ	ㅅ	ᠰ	ㅅ	ᠰ	ㅅ	s

19	ᄒ	시	ᄒ	시	+	시	š
20	ᄃ	ㅌ	ᄃ	ㅌ	없 음		t
21	ᄃ	ㄷ	ᄃ ᄃ ᄃ	ㄷ	ᄃ ᄃ	ㄷ	d
22	ㄱ	ㅈ	ㄱ	ㅈ	없 음		j
23	ᄆ	ㅊ	ᄆ	ㅊ	없 음		č
24	ᄇ	야	ᄇ	ㅑ	ᄇ	ㅑ	ya
25	없 음		ㄹ	ㄹ	*	ㄹ	r
26	없 음		ᄉ	ᄉ	ᄉ	ᄉ	ng

## 2.1. 모음 대응

위 도표에서 보았듯이, 몽골어 7개 모음(a, e, i, o, ö, u, ü)에 대응하여 기록한 한글 표기의 문제점은 원순모음 u와 ü를 한 글자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몽골어서는 모음조화(vowel harmony)<sup>3)</sup>의 원칙대로, 한 단어 안에서 남성모음과 여성모음이 함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글에 없는 글자를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몽골문자인 사각 문자 및 소음보, 횡서 사각 문자 체계에서도 나온다.

### ① 모음 ö와 ü

‘ö’는 <몽어노걸대>에서 어중과 어말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몽골어 방언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기문(1964:382)에서는 ‘ö(위)가 a) 자음이 ‘č’\* ‘j’, ‘n’ 뒤에서는 [위]로 기록되고, b) 그 밖의 경우에는 [우]로 기록된다.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사실상 <몽어노걸대>에는 蒙古語의 ‘u, ü, ö’의 三母音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sup>4)</sup>고 하였다.

- 
- 3) 몽골어의 모음조화 규칙은 한 단어 안에서 남성모음(a, o, u)과 여성모음(e, ö, ü)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음조화는 몽골문자 표기법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어두에 남성모음이 있으면 어중과 어말 모음을 남성모음으로 읽는 규칙이 있다. 즉, 어두 모음을 따라 읽어야 하니까 어중과 어말의 글자 요소는 따로 구분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
- 4) 정제문(1992:13)에서는 ‘어두음절에 나타나는 ‘ö, ü’가 변별되는 환경은 ‘b, č, j, m, n’ 뿐이고 ‘d, t, g, k, s’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기술하고, 이 현상은 1. 이들 후자의 front-nature(전설성)에 기인하거나, 2. 18세기 한국인들이 들을 수 있었던 몽골어의 어떤 방언에만 존재하던 음운론적 특징이거나, 아니면 3. 단순히 한국인들이 이들 자음 뒤의 ‘ö’와 ‘ü’를 변별하지 못했거나 이 세가지 경우중 하나일 것이라고 봤다. 송기중(1985:383)에서도 ‘제1음절의 ‘ö’와 ‘ü’는 語頭音이 ‘ø,

그러나 실제로는, ‘ö’는 어두에서 ‘č-, j-, n-’ 외에 ‘b-’ 뒤에서도 나타난다. 한글로 기록할 때 몽골어의 음운마다 대응하는 한글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나 모음 ‘u’(우)와 ‘ü’(우)의 경우는 그 단어가 남성어인가 여성어인가 하는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구분표기 하지 않은 것이었다. 만일, 자음 ‘č-, j-, n-, b-’ 뒤에 오는 ‘ö’를 기록할 수 있었다면 아래 예와 같이 현대몽골 방언에서 ‘č-, j-, n-, b-’의 뒤에서 ‘ö’로 발음되는 단어들이 <몽어노걸대>에서 ‘ü’로 기록되었다. 예를 들면,

- a. jüb `맞는, 옳은` ~ kh. jöb
- b. jübləldüji `논의하고` ~ kh. dzöbleldüdž`
- c. čübürinə `흐른다, 흘러내린다` ~ kh. čöbürin-e

이러한 사실은 자음 ‘č-, j-, n-’의 경우 ‘ö’를 (위)로, 다른 경우에는 (우)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몽골어 모음 ‘ö, ü’가 여러 몽골 방언에서 교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보인다. 즉, 어두에서 ‘č-, j-, n-, b-’ 이외의 자음 뒤에 ‘ü’가 나타나는 것은 방언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모음 ‘ö’가 자음 ‘č-, j-, n-, b-’ 이외의 자음 뒤와 비어두 음절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2. 자음 대응

<몽어노걸대>에서 몽골문자의 기록과 한글로 전사된 부분을 검토하여 자음들을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표 2> 몽어노걸대의 자음 대응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b	ᠪ	w	ᠠ, ᠭ, ᠭᠢ	č	ᠴ	m	ᠮ	l	ᠯ
d	ᠳ	s	ᠰ	j	ᠵ	n	ᠨ	r	ᠷ
t	ᠲ	š	ᠱ			ng	ᠩ		
q	ᠬ	y	ᠶ						
k	ᠬ								
γ	ᠬ								
g	ᠬ								

여기서 고전몽골어의 남성어와 여성어의 ‘γ/g’를 ‘ᠬ’으로, 또 유음 ‘l’과 ‘r’을 ‘ᠷ’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몽골어 서로 다른 두 자음을 한글로는 한

b, č, j, m, n’인 경우에만 ‘ö’를 `ᠳ`로 ‘ü’를 `ᠲ`로 표기함으로써 구별하였고, ‘d, t, g, k, s’인 경우는 구분없이 `ᠲ`로 표기되었다고 하였다.

개의 문자로 표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글 체계에 그 글자들이 별도로 없었다. 둘째, 고전몽골어 ‘γ/g’(ᠭ)가 남성모음 단어이나 여성모음단어이나에 따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유음 ‘l’과 ‘r’은 몽골문자 원본을 따라 읽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골문자의 파찰음 ‘j’과 ‘č’은 ‘ya, ye, yo, yö, yu, yü’라는 음절과 함께 기록하게 되었다. 자(jya), 저(jye), 죠(jyo), 쥬(jyu~jyü); 차(čya), 처(čye), 초(čyo), 추(čyu, čyü).

이 문헌에 ‘dz, ts’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글의 체계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보다 몽골 방언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호르친 방언에 파찰음 ‘dz, ts’가 없다. 마찰음 ‘š’를 또한 위와 같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몽골문자의 ‘s’와 구별해 표시한 것이다. 샨(šya), 셔(šye), 쇼(šyo), 슈(šyu, šyü). 그리고 고전몽골어의 외래어를 표시할 ‘z’를 한글로 기록할 가능성이 부족해서 ‘j’와 같은 문자를 사용했다.

<표 3> 몽학삼서 음절 대응

바	보	부	버	뷔	부	비	없음
ba	bo	bu	bə	bö	bü	bi	
다	도	두	더	없음	두	디	드
da	do	du	də		dü	di	dī
타	토	투	터	없음	투	티	없음
ta	to	tu	tə		tü	ti	
가	고	구	거	없음	구	기	그
γa	γo	γu	gə		gü	gi	gī
자	죠	쥬	저	쥐	주	지	즈
ja	jo	ju	jə	jö	jü	ji	jī
차*	초	추	처	취	추	치	없음
차	ča	ču	čə	čö	čü	či	
하	호	후	켜	없음	쿠	키	흐
qa	qo	qu	kə		kü	ki	qi
라	로	루	려	없음	루	리	없음
la	lo	lu	lə		lü	li	

마	모	무	머	뮌	무	미	없음
ma	mo	mu	mə	mö	mü	mi	
나	노	누	너	뉘	누	니	없음
na	no	nu	nə	nö	nü	ni	
파	없음	푸	피	없음	푸	피	없음
pa		pu	pə		pü	pi	
사	소	수	서	없음	수	시	스
sa	so	su	sə		sü	si	sī
샤	쇼	슈	셔	없음	슈	시	없음
ša	šo	šu	šə		šü	si	
야	요	유	여	없음	유	없음	없음
ya	yo	yu	yə		yü		

위 표에서 보듯이 몽학삼서의 몽골어를 한글로 표기한 체계는 蒙文十二字頭<sup>5)</sup>와 일치한다. 蒙文十二字頭라는 글자 체계는 원래 몽골어에는 없었다. 만주는 위구르 몽골 글자를 받아들여서 다하이 박시(Daqai baysi)라는 사람이 만주의 두살(점)과 빈트(동그라미)가 있는 문자<sup>6)</sup>를 만들 때 자신의 알파벳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十二字頭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것을 나중에 몽골어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사전이나 책을 저술할 때 같이 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만주는 1632년 쯤에 十二字頭를 만들었다면 몽골어에서는 17세기 중반에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蒙文十二字頭의 몽골문자와 한글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4> 蒙文十二字頭의 몽골문자와 한글 대응

蒙文十二字							
몽골자	ᠮᠤ	ᠮᠤᠨ	ᠮᠤᠨᠢ	ᠮᠤᠨᠣ	ᠮᠤᠨᠤ	ᠮᠤᠨᠤᠨ	ᠮᠤᠨᠤᠨᠣ
한글	아	어	이	오	우	위	우
전사	a	ə	i	o	u	ö	ü

5) 蒙文十二字頭에 대하여 이기문(1969)에서 참고.

6) 몽골문자를 처음으로 받아드릴 때 만주(1599)는 두살(점)과 빈트(동그라미)가 없는 몽골식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중에 1627년에 여러 음을 표기하는 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두살(점)과 빈트(동그라미)를 더하였고 1632년부터 일상화하였다.

몽골자	$\text{ᠪᠠ}$	$\text{ᠪᠡ}$	$\text{ᠪᠢ}$	$\text{ᠪᠣ}$	$\text{ᠪᠤ}$	$\text{ᠪᠠᠢ}$	$\text{ᠪᠠᠨ}$
한글	바	버	비	보	부	뷔	부
전사	ba	bə	bi	bo	bu	bö	bü
몽골자	$\text{ᠬᠠ}$	$\text{ᠬᠡ}$	$\text{ᠬᠢ}$	$\text{ᠬᠣ}$	$\text{ᠬᠤ}$	$\text{ᠬᠠᠢ}$	$\text{ᠬᠠᠨ}$
한글	하	가	히	호	고	후	구
전사	qa	ya	qi	qo	yo	qu	yu
몽골자	$\text{ᠰᠠ}$	$\text{ᠰᠡ}$	$\text{ᠰᠢ}$	$\text{ᠰᠣ}$	$\text{ᠰᠤ}$	$\text{ᠰᠠᠢ}$	$\text{ᠰᠠᠨ}$
한글	사	셔	시	소	수	쉬	수
전사	sa	sə	si	so	su	sö	sü
몽골자	$\text{ᠱᠠ}$	$\text{ᠱᠡ}$	$\text{ᠱᠢ}$	$\text{ᠱᠣ}$	$\text{ᠱᠤ}$	$\text{ᠱᠠᠢ}$	$\text{ᠱᠠᠨ}$
한글	샤	셔	시	쇼	슈	쉬	슈
전사	ša	šə	ši	šo	šu	šö	šü
몽골자	$\text{ᠵᠠ}$	$\text{ᠵᠡ}$	$\text{ᠵᠢ}$	$\text{ᠵᠣ}$	$\text{ᠵᠤ}$	$\text{ᠵᠠᠢ}$	$\text{ᠵᠠᠨ}$
한글	자	져	지	조	주	쥐	주
전사	ja	jə	ji	jo	ju	jö	jü
몽골자	$\text{ᠬᠡᠭᠦ}$	$\text{ᠬᠡᠭᠦ}$	$\text{ᠬᠡᠭᠢ}$	$\text{ᠬᠡᠭᠣ}$	$\text{ᠬᠡᠭᠤ}$	$\text{ᠬᠡᠭᠠᠢ}$	$\text{ᠬᠡᠭᠠᠨ}$
한글	커	거	키/기	쿠	구	퀴	귀
전사	ke	ge	gi	kü	gü	kö	gö
몽골자	$\text{ᠳᠠ}$	$\text{ᠳᠡ}$	$\text{ᠳᠢ}$	$\text{ᠳᠣ}$	$\text{ᠳᠤ}$	$\text{ᠳᠠᠢ}$	
한글	타	다	테	데	티	디	
전사	ta	da	te	de	ti	di	
몽골자	$\text{ᠳᠣᠨ}$	$\text{ᠳᠣᠨ}$	$\text{ᠳᠣᠨ}$	$\text{ᠳᠣᠨ}$	$\text{ᠳᠣᠨ}$	$\text{ᠳᠣᠨ}$	$\text{ᠳᠣᠨ}$
한글	토	도	투	두	튀	뒤	투/두
전사	to	do	tu	du	tö	dö	tü/dü
몽골자	$\text{ᠮᠠ}$	$\text{ᠮᠡ}$	$\text{ᠮᠢ}$	$\text{ᠮᠣ}$	$\text{ᠮᠤ}$	$\text{ᠮᠠᠢ}$	$\text{ᠮᠠᠨ}$
한글	마	머	미	모	무	뮌	무

전사	ma	me	mi	mo	mu	mö	mü
몽골자	ᠮᠠ	ᠮᠡ	ᠮᠢ	ᠮᠣ	ᠮᠤ	ᠮᠤ᠎ᠠ	ᠮᠤᠨᠠ
한글	나	너	니	노	누	눠	누
전사	na	ne	ni	no	nu	nö	nü
몽골자	ᠷᠠ	ᠷᠡ	ᠷᠢ	ᠷᠣ	ᠷᠤ	ᠷᠣ᠎ᠠ	ᠷᠣᠨᠠ
한글	라	러	리	로	루	뤄	루
전사	ra	re	ri	ro	ru	rö	rü
몽골자	ᠯᠠ	ᠯᠡ	ᠯᠢ	ᠯᠣ	ᠯᠤ	ᠯᠣ᠎ᠠ	ᠯᠣᠨᠠ
한글	라	러	리	로	루	뤄	루
전사	la	le	li	lo	lu	lö	lü
몽골자	ᠶᠠ	ᠶᠡ	ᠶᠢ	ᠶᠣ	ᠶᠤ	ᠶᠣ᠎ᠠ	ᠶᠣᠨᠠ
한글	야	여	이	요	유	유어	유
전사	ya	ye	yi	yo	yu	yö	yü
몽골자	ᠴᠠ	ᠴᠡ	ᠴᠢ	ᠴᠣ	ᠴᠤ	ᠴᠣ᠎ᠠ	ᠴᠣᠨᠠ
한글	차	쳐	치	초	추	춰	추
전사	ča	če	či	čo	ču	čö	čü
몽골자	ᠫᠠ	ᠫᠡ	ᠫᠢ	ᠫᠣ	ᠫᠤ	ᠫᠣ᠎ᠠ	ᠫᠣᠨᠠ
한글	파	펴	피	포	푸	꿔	푸
전사	pa	pe	pi	po	pu	pö	pü
몽골자	ᠬᠠ	ᠬᠡ	ᠬᠢ	ᠬᠣ			
한글	하	가	호	고			
전사	qa	ya	qo	yo			
몽골자	ᠴᠢ	ᠴᠡ	ᠴᠢ	ᠴᠣ	ᠴᠤ		
한글	차	쳐	츠	초	추		
전사	cha	che	chi	cho	chu		
몽골자	ᠵᠠ	ᠵᠡ	ᠵᠢ	ᠵᠣ	ᠵᠤ		
한글	자	저	즈	조	주		

전사	tsa	tse	tsi	tso	tsu		
몽골자	ᠲᠰ᠎ᠠ	ᠲᠰᠡ	ᠲᠰᠢ	ᠲᠰᠣ	ᠲᠰᠤ		
한글	와	위	카	디	ᠲᠤᠤ		
전사	wa	we	k`a	di	uud		

이 몽골문자와 한글 대응을 보면 한글로 몽골어를 전사할 때 한글자로 한음을 표기할 蒙文十二字頭의 규칙은 몽학삼서에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sup>7)</sup>. 그리고 이 규칙은 만문十二字頭에서 이어받은 것이다.

<표 5> 蒙文十二字頭に 기록된 음절말 자음들

몽골자	ᠠ	ᠡ	ᠢ	ᠣ	ᠤ	ᠥ	ᠦ	ᠦ	ᠦ	ᠦ	ᠦ	ᠦ
한글	ᠠ	ᠡ	ᠢ	ᠣ	ᠤ	ᠥ	ᠦ	ᠦ	ᠦ	ᠦ	ᠦ	ᠦ
전사	γ	g	n	d	r	l	m	b	s	š	y	ng

### 3. 몽골어 만주문자 사전

17-18세기 몽골어를 전사하는 식으로 기록한 문자는 한글 외에도 만주문자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은 조선조 사역원에서 간행한 몽학삼서와 당시 蒙文鑑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 왔다<sup>8)</sup>.

정제문(1992:10)에서는 `만주자 전사의 원칙과 한글 전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蒙語類解> 및 만주자문헌의 대조작업이 먼저 수행되어야 이 표기들이 나타내는 음가를 추정하고 이들의 음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사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주문자의 한 특징은 만주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언어를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글자였으며, Б.Ринчен(1964-67:51)도 언급했듯이 `당시 라틴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글로 몽골어를 표시할 때도 만주문자의 규칙을 이어 받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한

7) 송기중(1985:376)은 蒙文十二字頭는 <몽어유해>의 한글 전사 원칙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고 하였다.

8) 이기문(1967:92), 정제문(1992:10) 참고. Poppe(1935)에서는 다구르 방언에 대해서 비교·연구할 때 기초 문헌으로 사용하였다.

일이다.

18세기와 관련된 <Qaγan-u bičigsen manju üge-yin toli bičig>(1717), <Qaγan-u bičigsen manju-mongγol-kitad üge-yin γurban jüil-ün ayalγu niyelegsen toli bičig>(1771), <Qaγan-u bičigsen dörben jüil-ün üseg qabsuruγsam toli bičig>(17세기 후기), <Qaγan-u bičigsen tabun jüil-ün üseg qabsuruγsan manju üge-yin toli bičig>(1790) 등의 사전에서 몽골·중국·티베트·위구르어의 발음을 만주문자로 기록한 것은 당시의 올바른 발음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몽골어 발음을 기록한 부분에서 몽골문어의 ‘olan-u’(많은 것의)를 ‘olan-nu’라고 표기하여 ‘-n’으로 끝나는 단어의 속격어미를 ‘-nu/-nü’로 발음하라고 기록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蒙文鑑인 <Qaγan-u bičigsen manju-mongγol-kitad ügen-ü γurban jüül-ün ayalγu neyilegsen toli bičig>(1771)에서는 만주어와 몽골어를 한자로 전사하고, 또 몽골어를 만주문자로 전사하고 기록하였다. 이 사전은 1771년과 1780년에 간행했으며 서론과 32권으로 구성된 사전이다<sup>9)</sup>.

일부 학자들은 만문十二字頭를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지만, 아마도 몽골문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음운론적 특징도 만주어와 몽골어가 일치한다.

蒙文十二字頭는 원래는 몽골어에 없었는데 나중에 만문十二字頭를 몽골문자로 바꾸어 蒙文十二字頭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래 만주는 몽골문자를 받아들여 만문十二字頭를 만들 때 몽골어 문법서인 <Jüriken-ü toltā>(심정연의)<sup>10)</sup>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蒙文十二字頭는 몽골어에 없었지만 같은 문자 규칙이 있었으며 나중에 만문十二字頭와 蒙文十二字頭의 기초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몽골어 문법서인 <Jüriken-ü toltā>(심정연의)에서는 ‘a’에서 ‘o, u’로, ‘e’에서 ‘ö, ü’로, 그리고 중립음 ‘i’를 기초로 ‘na’에서 ‘no’로, ‘nu’와 ‘ne’에서 각각 ‘nö, nü’ 등으로 이루어진 123개의 음절 글자를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13세기부터 알려진 몽골문자 규칙은 <표7>에서 보여 준 蒙文十二字頭의 규칙과 만문十二字頭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나중에 만문十二字頭에서 따로 음운 마다 글자를 표기하였고 정의했으며 몽골어에는 다시 만문十二字頭와 방식이 같은

9) Б.Ринчен(1964:130); 이기문(1967:92-96)에서 <蒙文鑑>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10) 오늘날 알려진 바로는 몽골의 첫 문법서는 12-13세기에 공가잘창(Гунгажалцан, 1188-1251)이 편찬한 <Jüriken-ü toltā>이다. 그 후로 초이지-오드세르(Чойжу-Одсэр), 공가-오드세르(Гунгаа-Одсэр) 등과 같은 언어학자들도 문법책을 간행하였지만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문법서들을 기초로 한 단장다그와(Данзандагва)의 <Jüriken-ü toltā-yin tayilburi>라는 17세기 문법서만이 전한다.

蒙文十二字頭식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 결론

17-18세기에 간행된 몽골어 문헌 중에 구어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문헌은 몽문연대기이다. 적은 부분이지만 이 문헌에 나타난 구어적 요소들은 북경본 계세르와 몽학삼서에 나타난 구어의 특징과 일치하며 또한 토드 및 횡서 사각 문헌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몽학삼서의 하나인 <몽어노걸대>는 <첩해몽어>, <몽어유해> 두 문헌의 특징을 거의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첩해몽어>와 <몽어유해>, 만문 사전들 역시 같은 음운론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7-18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은 음운론적으로 유사한 많은 특징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당시 몽골어와 한국어사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자료>

*Mongolian Lao Kida(1790) Source Materials for Korean Studies No. 3,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Sogang University, Seoul, 1984.*

「蒙語類解」 (1790)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影印本, 1971.

「捷解蒙語」 (1790) 影印本, 1988.

### <논저>

金芳漢(1962) 「奎章閣所藏 蒙語老乞大의 刊行年代에 關하여」, 『文理大學報』 第10卷, 第1號, 서울대, 文理大, pp. 26-30.

----- (1963) 「蒙學三書 몽골어 대하여」, 서울대 pp. 20-23.

----- (1981) 「한국어의 계통」, 서울.

김형수(1974) 「蒙學三書研究I」, 螢雪出版社, 大邱.

이기문 (1961) 「國語史研究」, 서울.

- (1964) 「蒙語老乞大 研究」, 『震檀學報』 第五十五.六.七號 合本, pp.367-426.
- (1967) 「蒙學書 研究의 基本問題」, 『震檀學報』, 第 三十一號, 震檀學會, pp. 89-113.
- (1969) 「蒙文十二字頭에 대하여」, 『金載元 博士 回甲記念論叢』, pp. 721-732.
- (1977) 「國語音韻史研究」.
- 이성규 (1994) 「『蒙學三書』의 蒙古語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몽골학, 제2호, pp. 21-47.
- (1997) 「捷解蒙語의 蒙古語 研究」, 몽골학, 제5호, p. 31-91.
- 삭달수랭(2005) 「17世紀 蒙文年代記의 蒙古語 研究」, 네오출판사.
- 李聖揆 (2004) 「蒙學三書의 蒙古語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 송기중 (1985-1)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書名에 대하여」 (一), 『國語學』 14, 國語學會, pp. 115-147.
- (1993) 「『蒙學書』,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安秉禧先生回甲記念論叢),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文學과 知性社, 서울, pp. 271-296.
- Poppe, N. (1926) 「Geserica, Untersuchung der sprachlichen Eigentümlichkeiten der Mongolischen Version der Gesserikhan」, Asia Major, III, S.1-32 u. S. pp. 167-193. 최형원 번역(1998), 『몽골본 게세르칸의 언어적 특징들에 관한 연구』, 몽골학, 제 7 호, pp. 233-297.
-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Otto Harrassowitz-Wiesbaden.
-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XCV, Helsinki.

**Language materials of spoken Mongolian from XVII-XVIII centuries  
as sources of historical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bstract)**

*Key words: the 17-18th century Mongolian and Korean, phonetics & phonology, written language, colloquial language, dialects, phonetic system, historical sound change.*

In order to identify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17-18th century Mongolian, the Mongolian literatures of the times were classified into two parts by whether they were written in Mongolian scripts or foreign scripts: for the literatures written in Mongolian scripts, there are (1) the Mongol Chronicles of the 17-18th century, (2) Beijing Geser and Longfusi Geser, (3) Tod Geser, and (4) the literatures written in Soyombo script and Khevtee dorvoljin script; for the literatures written in foreign scripts (Korean and Manchu), (1) *Mong-hak-sam-sŏ*, that is *The Three Books for the Study of Mongolian* written in Korean, and (2) the dictionaries that transcribed Mongolian into Manchu script.

This study did not intend to use necessarily a different terminology for the 17-18th century Mongolian and Korean, since studies have been made only on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still not on the morphology, vocabulary, and syntax of Mongolian and Korean of the time.